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제29차 정기학술대회

# ‘K-현상’을 묻다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3:00~18:00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

## ‘K-현상’을 묻다

시간	내용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이상진 (통합인문학연구소장)
	축사	고성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제1부		사회: 김승민 (방송대)
13:30-14:20	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와 문화산업의 변화: 현황과 전망	발표: 이성민 (방송대) 토론: 김상민 (방송대)
14:20-15:10	글로벌 AI시대의 K팝과 K예능	발표: 김준수 (SBS 예능본부) 토론: 장희재 (방송대)
제2부		사회: 남기현 (방송대)
15:30-16:20	"K-문학"의 시대, 한국문학 번역 현황과 한국문학의 과제	발표: 손혜민 (연세대) 토론: 심지영 (방송대)
16:20-17:10	한국 대중문화 속 역사 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발표: 이규철 (성신여대) 토론: 서은혜 (서울대)
17:10-18:00	K민주주의의 확산과 K민족주의의 대두	발표: 김재형 (방송대) 토론: 김영진 (성균관대)
18:00	정리 및 폐회	

문의 | 통합인문학연구소(bu15@mail.knou.ac.kr, 02-3668-42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제29차 정기학술대회

# ‘K-현상’을 묻다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3:00~18:00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

시간	내용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이상진 (통합인문학연구소장)
	축사	고성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제1부		사회 : 김승민 (방송대)
13:30-14:20	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와 문화산업의 변화 : 현황과 전망	발표 : 이성민 (방송대) 토론 : 김상민 (방송대)
14:20-15:10	글로벌 AI시대의 K팝과 K예능	발표 : 김준수 (SBS 예능본부) 토론 : 장희재 (방송대)
제2부		사회 : 남기현 (방송대)
15:30-16:20	"K-문학"의 시대, 한국문학 번역 현황과 한국문학의 과제	발표 : 손혜민 (연세대) 토론 : 심지영 (방송대)
16:20-17:10	한국 대중문화 속 역사 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발표 : 이규철 (성신여대) 토론 : 서은혜 (서울대)
17:10-18:00	K민주주의의 확산과 K민족주의의 대두	발표 : 김재형 (방송대) 토론 : 김영진 (성균관대)
18:00	정리 및 폐회	

문의 | 통합인문학연구소(bu15@mail.knou.ac.kr, 02-3668-4203)



# ‘K-현상’을 묻다

## - 목 차 -

<b>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와 문화산업의 변화: 현황과 전망</b>	
발표 - 이성민 (방송대) -----	3
토론 - 김상민 (방송대) -----	18
<b>글로벌 시대의 K팝과 K예능</b>	
발표 - 김준수 (SBS 예능본부) -----	19
토론 - 장희재 (방송대) -----	28
<b>“K-문학”의 시대, 한국문학 번역 현황과 한국문학의 과제</b>	
발표 - 손혜민 (연세대) -----	29
토론 - 심지영 (방송대) -----	40
<b>한국 대중문화 속 역사 콘텐츠의 성과와 한계</b>	
발표 - 이규철 (성신여대) -----	41
토론 - 서은혜 (서울대) -----	53
<b>K민주주의의 확산과 K민족주의의 대두</b>	
발표 - 김재형 (방송대) -----	55
토론 - 김영진 (성균관대) -----	64



# 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와 문화산업의 변화: 현황과 전망

발표 - 이성민 (방송대)

토론 - 김상민 (방송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제29차 학술대회 “K현상을 묻다”

# 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와 문화산업의 변화 : 현황과 전망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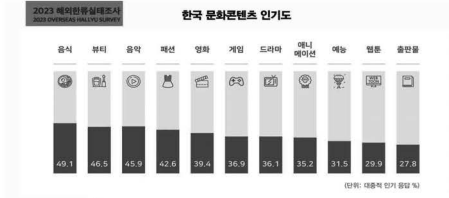
2024.12.20

1

# 들어가며: 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 돌아보기

[언론분석] 케이팝, 드라마, 테크놀로지 - 한국 소프트파워의 7대 기둥

[등록일] 2022-03-31 [조회] 1107



## K-Pop, série, tech... Les 7 piliers du « soft power » sud-coréen

L'aura de la Corée du sud a depuis longtemps dépassé ses modestes frontières mais elle s'étend désormais à nombre de nos nouvelles marottes culturelles. La vague venue du pays du matin calme semble irrésistible. Décryptage de ce phénomène alors que la Corée du sud vient d'être son nouveau président.

Lire plus tard Spectacles & Musique Partager Commenter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AKO 웹진

2

오징어 게임

Do you know.. '두유노 유니버스'?

Butter, VIVE, BLACKPINK, WORLD TAERWONDO, D\*P, LEAGUE OF LEGENDS, RATTLEGROUND, OSCARS

3

# 들어가며: 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 돌아보기

- K-컬처 확산의 배경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환경의 도래
  - 전방위적인 K-컬처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실질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는 부족
- 본 발표는
  -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K-컬처가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특징과 주요 확산 사례 및 쟁점 검토, 제언 제시
  -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만들어낸 문화산업의 변화
  - 온라인을 통해 케이컬처를 접촉한 이들이 단순한 주목을 넘어 다양한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선순환의 가능성 탐색
  - 기존의 설계되지 않은 온라인 케이컬처 환경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논의

4

## K-컬처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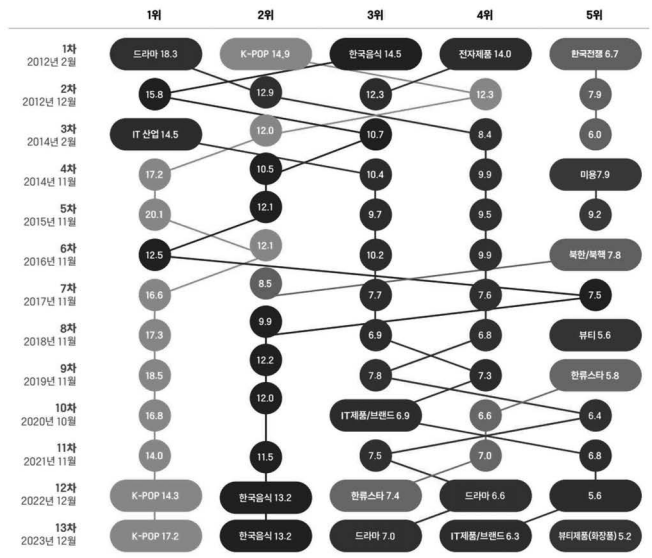
한류 실태 조사를 통해 본 K컬처의 확산 경로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

Kpop, 한식, 한국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와 생활문화가 주된 연상 이미지의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9 한국 연상 이미지 연도별 비교

BASE: 전체, 단위: 1순위 %



Q. 귀하께서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은요?

6

# K-컬처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나?

한류 실태 조사를 통해 본 K컬처의 확산 경로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눈에 보는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26개국 만류 경험자가 생략하고 느끼는 17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와 인식을 측정한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26개국 전역인 중 만류 경험자 표본 규모 25,000명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조사  
조사 시기 2023년 11월

### 한국 문화콘텐츠 평균 소비 비중

Q 귀하의 평소 한국 문화콘텐츠 시청률은 비중에 얼마나 됩니까?



미국

멕시코	28.9%
브라질	26.4%
미국	20.7%
아르헨티나	18.6%
캐나다	17.4%

### 유럽

튀르키예	23.7%	러시아	17.0%
프랑스	19.0%	스페인	16.9%
영국	18.4%	이탈리아	16.3%
독일	17.9%		

### 아시아/태평양

중동

UAE	32.0%
사우디아라비아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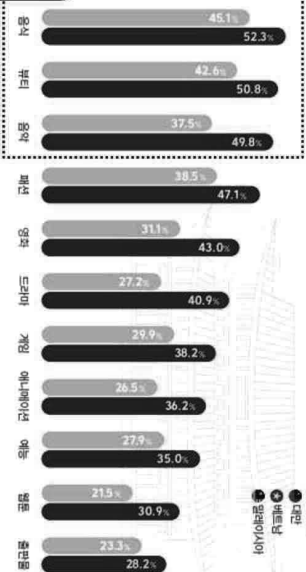
아프리카

이집트	32.0%
남아프리카공화국	28.9%

인도네시아	34.1%
베트남	34.9%
말레이시아	33.3%
인도	32.2%
타국	32.0%
중국	25.2%
대만	25.0%
호주	20.2%
캐리비안	19.7%
일본	18.1%

### 한국 문화콘텐츠별 대중적 인기도

Q 전체 국가의 국가(에서) 한국의 인기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중적인 K-컬처는 음식, 뷰티, 음악(Kpop)

### 한국 문화콘텐츠 관심도

Q 현재 나의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는 1년 전과 비교하면?



Q 현재 나의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지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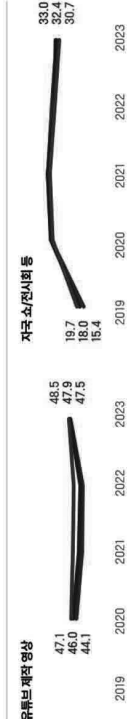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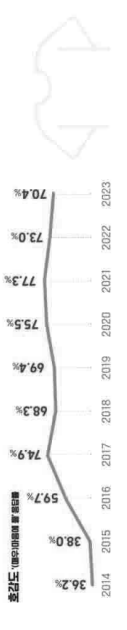
2024 OVERSEAS HALLWAY SURVEY

# K-컬처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나?

한류 실태 조사를 통해 본 K컬처의 확산 경로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 문화의 주된 접촉 경로가 온라인 미디어 (SNS/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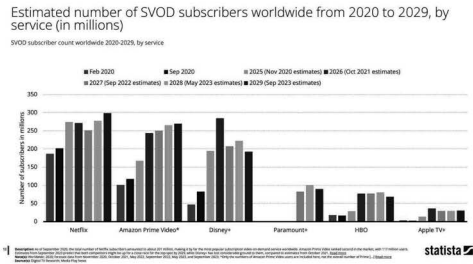


Q. 귀하가 평소 한국 패션 제품/스타일 또는 이미지/동영상을 접하는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동영상, 음향 재생/동영상 각각 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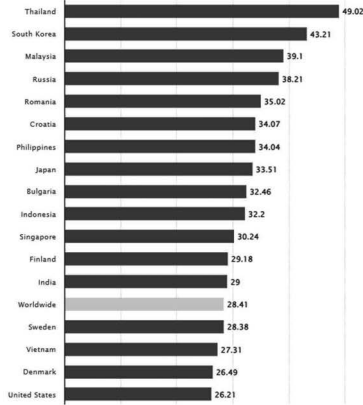
패션/뷰티/음식의 경우 온라인 미디어 (SNS/영상)의 비중 축소 (직접 경험의 증가로 볼 수 있을까?)

## K-컬처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나?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장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의 확대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률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상적 매체로서의 위상을 확보



2024년 7월 현재 전 세계 일부 시장에서 사용자당 YouTube 모바일 앱을 사용한 월별 시간 (단위: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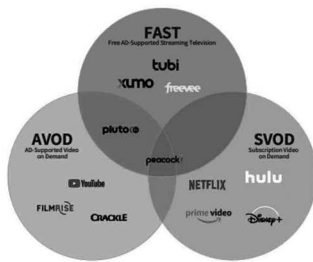


출처: Statista (2024.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87283/time-spent-youtube-app-selected-countries/>

8

## K-컬처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나?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장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방식의 다양화 확대
- 온라인 영상 소비에 있어서 유료OTT 서비스와 무료 동영상 서비스의 활용이 확대되는 등 영상 소비의 경로와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
  - (참고) 유튜브 플랫폼의 유저 시청 행태는 멀티스크린, 멀티포맷, 멀티장르로 확장되고 있음



OTT 서비스의 다양한 형태 (출처: Comcast, 2022.7)



동영상 플랫폼의 지형 변화 (출처: 황신재, 2024.3; Think with Google)

9

# K-컬처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나?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역할 확대

- 디지털 콘텐츠의 일상적 소비 확대
- 유튜브 등과 같은 참여형 플랫폼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일상에서의 콘텐츠 소비가 확대되고 콘텐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음
  - 유튜브 플랫폼 환경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방송 기반의 콘텐츠 장르 유형을 벗어나 강연, 인터뷰, Vlog, 코미디, 숏폼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가 공존하며 진화하고 있음
  - 유튜브 문화와 트렌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14개국의 만 18~44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의 응답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온라인에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68%의 응답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동영상을 다양한 형식(숏폼, 롱폼, 라이브스트림 등)으로 시청한다고 답변함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의 창작 활동**

일반 사용자가 기존 콘텐츠를 리믹스할 수 있도록 열어 내장된 기본 기능부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 기능까지, 새로운 콘텐츠 제작 도구가 날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추어 편집자, 특수 효과 아티스트가 되고 단 몇 시간 만에 인기 영화 시리즈의 클립을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콘텐츠 제작은 그 자체로 하나의 대중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팬들의 트렌드가 곧 주류 트렌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82%**  
의 응답자(온라인, 만 18-44세)가 지난 12개월 동안 온라인에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Instagram 스토리, TikTok, YouTube, Snapchat 등)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scarlouisepage  
구독자 77,600명

이미지 출처: Think with Google

10

# K-컬처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나? : 이용자 참여에 기초한 빠른 확산

**#BabySharkChallenge**  
TonightShowNet  
게시일: 2017. 8. 23.  
구독 22.4만

**Top 5 Baby Shark Dance Challenge Piny Version!**  
Laughtrip ang no. 1 at no. 3!  
EnteryRealWorld II  
조회수 2,077,153회

**BABY SHARK DANCE - (Ria Ricis, Marisha Chacha & Atika)**  
Ricis Official  
조회수 4,857,048회

**Parodi Baby Shark Dance yang Mendunia!**  
Pagi Pagi NET  
조회수 243,120회

**Begini Lucunya Ria Ricis dan Rafathar Saat Joget Baby Shark - Rumah Mama Amy**  
Rumah Mama Amy MNC TV  
조회수 120,364회

**Baby Shark Challenge**  
JoshLi and Trending  
조회수 1,374,209회

**BABY SHARK DANCE**  
Freddy Kesuma  
조회수 547,241회

**3 Polwan Joget Baby Shark**  
Netter: yang Tengah Cantik  
Medeos Video  
조회수 2,758,723회

# K-컬처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나? : 이용자 참여에 기초한 빠른 확산

## 문화의 전파자로서 Gen Z와 숏폼 플랫폼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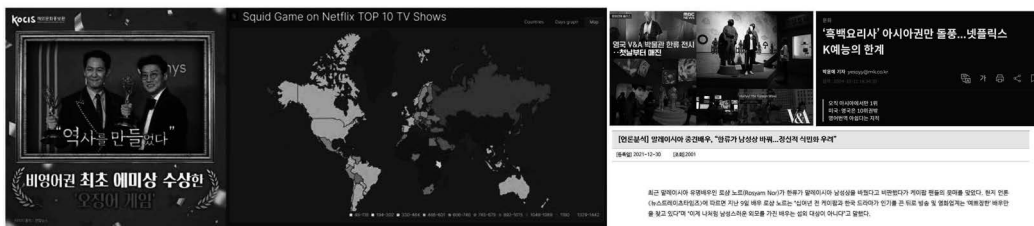
- 소셜 미디어의 활용의 확대
- 숏폼 플랫폼을 통한 바이럴의 빠른 속도
- 놀이 문화 중심의 팬덤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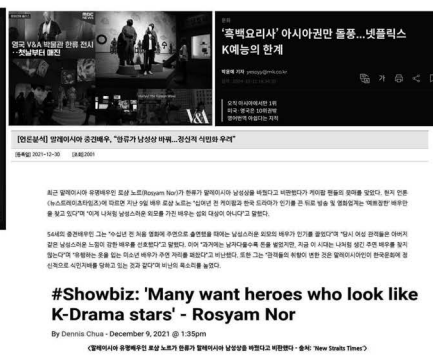
출처 : (좌)한국경제, (우)틱톡 뉴스룸

## 온라인 케이컬처, 주류와 비주류 사이

- 영화/드라마 등의 해외 성과 확대 → OTT를 통한 주류화 가능성
- 한류에 대한 주목 증가: 해외에서의 관련 전시, 학술행사 등 확대
  - 전세계적 확산 vs 아시아권 중심
- 주목의 반대 급부: 일부 국가의 문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



이미지 출처: KOCiS, 플릭스패트룸, MBC, 매일 경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온라인 케이컬처, 주류와 비주류 사이

## • 웹툰의 확산, 플랫폼 직접 진출의 가능성과 한계

K웹툰 세계가 반한다...네이버vs카카오, 현지 팬 확보 경쟁

송영진 기자 | 승인 2022.10.11 09:15 | 댓글 0

네이버, 'K-코믹스'서 현지판권 크리에이터 멤버십  
카카오, '카툰랜드 코믹스'서 '니혼' 슈퍼 IP 소개



LA 카툰랜드에서 열린 네이버웹툰의 행사 모습. 'KAKAO WEBTOON' / K-스타트-네이버

###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美 이어 독일·브라질서 '1위'

고가희 | 입력 2020.07.23 12:22

출처: 산이일보, 뉴스앤북, 조선일보



네이버 웹툰 (KAKAO WEBTOON)

'주가 반토막' 네이버웹툰 투자자들, 美 집단소송 움직임

전효진 기자

입력 2024.09.20 15:57



지난 6월 27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네이버 웹툰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팬 사인회에서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규삼, 조지, 손재호 등 네이버 웹툰 작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첫 달도 채 되지 않아 급모가 대비 반 토막 나면서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일 기준 주가는 11.30 달러로 공모가 대비 46.7% 하락한 상황이다. 소송인단은 웹툰엔터테인먼트가 IPO 당시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고의로 숨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4

# 온라인 케이컬처, 주류와 비주류 사이

## • 케이팝의 확산, 음악을 넘어 문화 경험의 매개로

로제 '아파트' 빌보드 '핫 100' 8위...  
지구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곡

국내외 신드롬...윤수일 '아파트'도 역주행

이영국 기자

입력 2024-10-29 16:08 | 입력 2024-10-29 16:07

가사를 읽어주세요 4:48 ▶



'아파트' 빌보드 100에서 8위를 기록하는 로제, 마스, 윤수일 (왼쪽)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그를 필적한 로제와 마스의 '아파트'는 윤수일과 함께 부른 '아파트(APT)'가 전세계 인들을 흥취시키고 있다.

출처: 한겨레, YTN, 스포츠동아, 동아닷컴

YTN

"아파트 아파트!"...로제가 즐겨 하는 'K-술계  
임' 전 세계가 취했다

2024년 10월 24일 14시 56분



블랙핑크 로제와 마스의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한 솔로 곡 '아파트(APT)'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면서 노래의 모티브가 된 게임을 따라 하는 팬들이 유령하고 있다.

'아파트(APT)'는 외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한국 특유의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를 차용한 곡이다. 로제가 즐겨 하는 '아파트 게임'은 동그랗게 둘러앉은 참가자들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구령에 맞춰 양손을 어깨에 얹어놓은 후 술레가 외친 '술수(술자)'에 따라 맨 아래 손부터 하나씩 빼는 게임이다. 술자리에서 할 경우 해당 술수(술자)에 손이 걸

로제 '아파트' 세계적 인기로 소맥, 김치볶음밥도 화제

입력 2024-10-29 11:07:00



블랙핑크 로제와 마스의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APT)'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로제가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아파트'는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곡으로 유류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임'과 '헬렌'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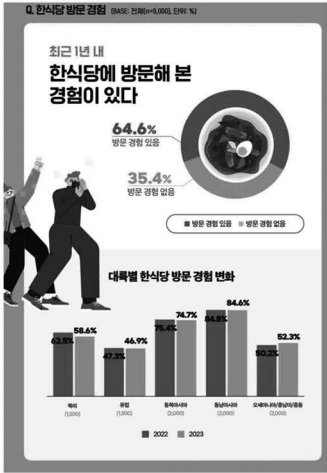
사외  
"아파트를 유혹의 장소로..." 말레이시아, 로제 '아파트' 비난

입력 2024-10-28 16:28

15

# 온라인 케이컬쳐, 주류와 비주류 사이

- K-푸드/K-패션 글로벌화의 가능성?



**일본 MZ세대, 한국 옷 사러 오픈런...오사카에 부는 K패션 열풍**

최근 20~30대 MZ세대가 한국 옷을 사러 오픈런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오사카에서 패션 시장 붐이 일고 있다. 한국 패션 브랜드는 일본 MZ세대에게 한국 옷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7일간 일본 오사카 한류 박람회 무대에 분장해 열린 브랜드 'K-Pop Fashion Show'는, 관람 시간 전체 2시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들었다. 행사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들었다. 행사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들었다.

**요즘 2030들 '3마' 오르면 감집?...일본·동남아까지 휩쓴 비결 뒤흔래**

요즘 2030세대는 '3마' 오르면 감집...일본·동남아까지 휩쓴 비결 뒤흔래. 한국 패션 브랜드는 일본 MZ세대에게 한국 옷을 소개하고 있다.



출처: 한식재단(2023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보고서), 중앙일보, 매일경제

# 온라인 케이컬쳐, 주류와 비주류 사이

- 숯폼을 통한 케이컬쳐의 확산

**여러분이 우리에게 불닭볶음면을 많이 보내주셔서**

Since you guys sent us lots of Fire Noodles

**런던의 불닭볶음면 도전!! // FIRE NOODLE CHALLENGE!!**

조회수 1118만회 9년 전 더보기

유튜버 영국남자의 불닭볶음면 먹방 캠페인.

**로깅'의 한국식 오이샐러드**

이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로깅'의 한국식 오이샐러드 관련 콘텐츠의 스크린샷 모음이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 샐러드를 시도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출처: 중앙일보, 경향신문



## 쟁점: 그들은 무엇을 소비하는 것인가?

- 한국 문화인가, '신기한 문화'인가, 새로운 문화인가



출처: 조선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 틱톡서 대박난 '한식 요리법'...이 나라

발행 2024.09.24 09:39 수정 2024.09.24 09:32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에서 캐나다인 한식 안물부인사가 공개한 한국 소파말 '오이 샐러드' 레시피가 유행하자 북유럽 8~9차 아이슬란드의 상점에서 오이가 많이 나는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고 영국 BBC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아이슬란드에서는 오이 소비량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생산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아이슬란드 농민 협회와 현지 슈퍼마켓 체인 관계자들이 전했다.

간혹 스카운 오이 품귀 현상은 '오이 유자찌(cucumber gyo)'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캐나다 인기 틱톡 요리가 모티브가 됐다.

### 한국식 아파트-편의점 줄줄이... 여기는 동탄 아닌 '물탄 신도시'

한국 문화가 대박난 품귀 수도

울탄베르프(울름)-구이오 가자

입력: 2023.11.15 09:49



익숙한 풍경 - 지난 22일 프랑스의 수도 울탄베르프에서 열린 '동지토시'는 매뉴얼에 한글로 약어가, 어학, 세부취급, 광명 등을 적어놓고 손님들 맞고 있었다(위 사진). 같은 울탄베르프에 있는 100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도 한국 건설사가 자자 국내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형태다. /울탄베르프-구이오 가자

20

## 쟁점: 그들은 무엇을 소비하는 것인가?

- '보여주고 싶은' 문화를 넘어서기  
: 일상 문화에 대한 주목 + 해외에서 소비되는 K-컬처에 대한 이해와 관심 필요
- 예를 들어, '무엇이 한식인가?' 논쟁  
→ 중요한 건 현재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느냐의 여부
  - 사람들의 관점에서 흥미롭고 궁금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에 대한 관심 필요
- 해외에서 수용되는 'K'의 요소들을 통해, 현재 K-컬처가 관심을 얻게 되는  
현지의 맥락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 지형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출처: 삼양, 유튜브 '양식의 양식' 캡처



## 전망: 한류의 진화가 가져온 고민 더 넓어지며 확장하는 K

- K-컬처, K-콘텐츠란 무엇인가?
  - 현재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미디어스케이프의 변동 속에서, 한국의 문화적 코드와 보편적 관점에서의 콘텐츠의 품질이 'K'라는 접두사를 통해 묶여 있는(coupling) 조건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접합의 결과는 언제든지, 다시 분리(de-coupling)될 수 있음
  - 문화 코드로서 K의 매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K-콘텐츠 생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한국의 문화 코드로 부터는 거리를 두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

22

## 전망: 한류의 진화가 가져온 고민 더 넓어지며 확장하는 K



## 제언: 지속가능한 온라인 K-컬처를 위하여

- K-컬처는 경험의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설계되지 않은 온라인 케이컬처 환경의 장점과 한계
- 온라인 문화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K-컬처는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취사-선택된 K-컬처의 조각들
  - 주목 경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이며 설계되지 않은 문화의 확산은  
언제든지 부정적인 반응과 반발, 왜곡과 오해와 연결될 위험 요소를 갖고 있음
- 어디에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할까?
  - K-컬처의 확산이란 '현상'을 어떤 성취(효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 국가적 관점에서의 '소프트파워' 확장이 목표라면, 과도한 국가적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
    - 그럼에도, 글로벌 공중(public)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필요
      - (cf) 문화체육관광부(2024.5.28), '해외 홍보 추진계획(2024-2027)'  
→ (추진 전략) 핵심가치 중심의 해외 홍보/ 공신력 있는 정보의 유통/ 새로운 파트너십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24

## 제언: 지속가능한 온라인 K-컬처를 위하여

- 온라인 K-컬처를 통해 배우기 : 확장하는 K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더 넓어지며 성장하는 K: 글로벌 보편을 품고 확장하는 K-컬처
  - K를 통해 다시 정의되는 한국: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의 변화와 확장
- K-의 확장을 한국 문화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류 현상은 그 자체로 '우리는 누구인가'란 질문을 새롭게 던지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양성을 품는 그릇으로 한국, 한류, K를 상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 K와 한류가 열어가는 확장과 진화 그 자체가, 미래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음

25

## 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와 문화산업의 변화 : 현황과 전망

# 감사합니다!

이성민  
sky153@knou.ac.kr

## 「디지털 시대 온라인 K-컬처와 문화산업의 변화: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김상민(방송대)

이성민 선생님의 발표문은 디지털 시대, K-컬처 확산을 가능하게 한 온라인 환경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몇 영화나 드라마를 중심으로 K-컬처를 사유해왔던 저에게는 미디어를 횡단하며 확장해나가는 K-컬처의 산업적 양태가 무척 흥미로웠고,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선생님께서는 K-컬처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장과 다양화,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적 특성과 환경의 변화는 주변부에 위치하던 K-현상을 글로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비단 K-컬처나 콘텐츠에 국한된 고유한 현상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솟폼의 경우(17쪽), 이 플랫폼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국적의 Z세대가 그들의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다른 국가의 독특한 문화적 현상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확장의 기회를 얻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문화는 분명 과거보다 글로벌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느끼는 'K'에 대한 일부 체감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야기한 전 세계적 현상일 뿐, 일종의 착시나 오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선생님께서 K-컬처의 주류화에 의문을 제기한 18쪽의 내용과도 관련 있습니다. 몇해 전 <기생충>을 필두로 <오징어 게임>과 BTS의 연이은 성공은 K-컬처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순간을 확실히 예증해주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다방면에서 그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OTT 시리즈들의 속편이나 유사한 장르의 작품들이 최근에는 큰 화제성을 갖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하고 계신 온라인 문화 안에서 K-컬처의 영향력이나 구체적 위상이 다른 국가와 견주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다소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K”나 “한국적 문화코드”를 어떤 의미로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가령, 발표문 22쪽에서 “문화 코드로서 K의 매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K-콘텐츠 생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한국의 문화 코드로부터는 거리를 두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때 “한국의 문화코드”가 꼭 글로벌화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적인 것’이 민족, 지역적 특수성을 보증하는 서사나 시각적 표상에만 국한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 예로 봉준호는 한 영화잡지와 인터뷰에서, 할리우드의 장르의 한국적 변용을 이야기하며, 한국영화의 역사적 특징으로 사회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모두 대중영화의 장르 규칙을 따르면서도 이러한 사회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한국영화의 특징 역시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는 ‘한국적 문화코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글로벌 시대의 K팝과 K예능

발표 - 김준수 (SBS 예능본부)

토론 - 장희재 (방송대)



▣. 글로벌 시대의 K팝과 K예능\_ 발표문





## 예능 PD란?



### 1 연출: 빛 좋은 개살구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러 사람 중 프로그램 전체의 책임을 지는 사람 (방송사 소속의 의미가 사라짐)



### 2 도제식: 매뉴얼 없이 P(피)곤하고, M(더)러워서 PD

선배가 하는 기획, 촬영, 편집 노하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는 식  
늘 밤새던 직업에서 요즘은 달라지고 있음 (MZ세대, 52시간 근무제)

### 3 창조성, 성실성, 인간성 등 (3성)을 모두 겸비

물과 기름, 냉탕과 온탕, 모순 덩어리 직업이라 힘들다



## 예능 PD란?



### 1 연출: 빛 좋은 개살구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러 사람 중 프로그램 전체의 책임을 지는 사람 (방송사 소속의 의미가 사라짐)



### 2 도제식: 매뉴얼 없이 P(피)곤하고, M(더)러워서 PD

선배가 하는 기획, 촬영, 편집 노하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는 식  
늘 밤새던 직업에서 요즘은 달라지고 있음 (MZ세대, 52시간 근무제)

### 3 창조성, 성실성, 인간성 등 (3성)을 모두 겸비

물과 기름, 냉탕과 온탕, 모순 덩어리 직업이라 힘들다

#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

## 노동 집약적인 단체 작업

시청자를 재밌게 하려는 의도로 만든 연예인이  
주로 나오는 프로그램  
PD, 작가, 카메라 감독, 출연자 모두의 공동 작업  
'뭉쳐야 산다'는 말처럼 팀웍이 중요

[1] <백종원의 야생만찬>, <놀면 뭐하니?>, <미치광이>

[2] <미치광이>, <백종원의 야생만찬>, <미치광이>, <미치광이>



##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

기획 — 촬영 — 편집  
각 단계마다 많은 변수가 존재  
출산의 고통에 비유될 만큼 힘든 과정  
<정글의 법칙 in 추크&폰페이>로 설명  
(2019.12~2020.02 방송)



# 예능 프로그램의 종류

## 실내 스튜디오 物

스튜디오 카메라를 컷팅 (원 컷, 투 컷)  
퀴즈, 게임 쇼 / 코미디 / 토크 쇼 / 시트콤  
뮤직 쇼 / 오디션 프로그램 / 시상식  
실내 버라이어티 쇼

[예] <2023 SBS 연기대상>, <기쁘다, 내게 사랑받아요>

[예] <2023 SBS 연기대상>, <연사, 꽃미군>




## 야외 ENG 物

ENG, 6mm, 5D, 거치 카메라로 촬영  
일반 게임 오락물 /  
리얼 버라이어티 /  
관찰 리얼리티











## 관찰 리얼리티 예능의 특징

**아이 ENG 프로그램: 관찰에 초점**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진화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예능

**지켜보는 연출: 참을성(?) 테스트**  
 모니터 룸 / 인터컴 / 거치(관찰) 카메라 / 매직 미리 등을 활용한 기다리는 예능  
비니, 도원, 정민, 김재, 박지민, 정민, 김재

**최소한의 개입: The Realest 예능**  
 리얼리티를 위해 연출의 촬영 현장 개입을 최소화







## 관찰 리얼리티 예능의 제작

**기획**  
 PD와 작가들의 거침없는 회의 (브레인스토밍)  
 <백종원의 골목식당>: 요식업 폐업을 80%시대에 죽은 골목길을 살리자!  
비니, 정민, 김재, 박지민, 정민, 김재

**촬영**  
 참고 기다리면서 재미를 뽑아내라

**편집: 프로그램 성패의 90% 이상을 좌우**  
 (1) 시간과의 싸움  
 (2) 캐릭터 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 드라마 시리즈 화  
 (3) 각종 CG와 BGM을 통한 편집 기법



## 〈정글의 법칙〉 제작 과정 - 프리 프로덕션

1

### 기획: 컨셉트 결정

'조난생존', '보물생존', '개척생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발상  
상어를 타이틀 로고로 결정 이정호, 김민호, 오민호



2

### 장소 선정과 답사

이상적으로 예쁜 야생과  
현실적인 날씨와 아이템의 딜레마  
일출과 일몰의 법칙, 정글의 법칙을 따르라, 촬영보다 길게



3

### 섭외

최초의 부녀 출연: 매튜와 소미, 매미 부녀  
'개척자들' 시리즈: 장혁, 강다니엘, 최민호 1년 넘게 섭외



## 〈정글의 법칙〉 제작 과정 - 프로덕션

1

### 선발대

인서트 위주로 촬영  
드론캠, 5D 카메라



2

### 본 촬영

한 개 시즌을 전, 후반으로 나눔  
액션캠, 풀캠, 드론캠 등  
공들여 촬영



3

### 촬영 원칙

컨셉트는 유지하되, 리얼 역동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 얻어 걸리는 경우도



11화 : 최홍익(박지민) / 조난생존(박지민) / 보물생존



# 〈정글의 법칙〉 제작 과정 - 포스트 프로덕션

**1 예고와 프롤로그**  
 촬영 전부터 구상  
 예고와 프롤로그용 영상을 따로 촬영



**2 본 편집: 메이킹(Making)이 생명**  
 영혼 같아 넣은 병맛 편집  
 긴장감 고조와 궁금증 유발을 위해 CG, 에미메이션, 지도 등  
 출연자 캐릭터를 살린 편집



**3 종편과 믹싱**  
 자막, BGM, 효과음 등에 진심 필요  
 예능 메이킹 BGM의 60~70%가 클리셰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1997년 봄'  
 인간 테트리스...?



## 요즘 예능의 화두

### 미디어 환경의 변화

OTT에 종속? SNS, 숏폼 예능 전성시대 / 탕후루, 삐끼삐끼, 외모핵  
 누구라도 PD가 되는 시대 / 유튜버가 PD이자, 작가이자, 출연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할까? / 2025 마케팅 지상파 NO!



NETFLIX

### K-POP 영향력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K-POP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글로벌 아이돌 비즈니스 시대, 팬덤이 돈 / 뉴욕 연수 당시 체험  
 K-예능과 K-아이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 K-POP 아이돌의 역사와 미래

1

### 1세대: K-POP 시초

H.O.T. / 신화 / god  
S.E.S. / 핑클



2

### 2세대: K-POP 기반

소녀시대 / 빅뱅 /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 샤이니 / 원더걸스  
씨스타 / 에이핑크



3

### 3세대: 글로벌 K-POP 시작

BTS / EXO  
블랙핑크 / 트와이스



## K-POP 아이돌의 역사와 미래

4

### 4세대: 글로벌 K-POP 가속

아이브 / 에스파 / 르세라핌  
엔하이픈 / TXT



5

### 5세대: 한국인 없는 K-POP?

제로베이스원 / 라이즈  
아일릿 / 투어스  
캣츠아이 / 엔틸



6

### 미래

한국인이 단 한명도 없는 K-POP 그룹 탄생  
이수만 프로듀서 A20(중국 아이돌)  
작사, 작곡 등 즐기는 상어송 라이터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 / 로제 <APT>



## 요즘 예능의 화두



### K-POP 자원을 활용한 K-예능의 필요성

K-POP, K-무비, K-드라마 처럼 K-예능도 글로벌 시장 우위?  
상호보완에서 국내에서 성공했듯이, 글로벌에서도 성공?  
대형 콘서트와 오디션 프로그램이 결국 해답?



### AI 기술과 예능



PPT, 노래, 심지어 영상까지 AI가 제작 (gamma.app / lumalabs.ai / suno.com)  
모바일에서도 에이전트 기능까지 해주는 시대  
아바타, 메타버스 예능을 시청자가 원할지는? / 이세계아이돌, 플레이브  
AI 시대 가속화 속에서 더운 귀해지는 건 오히려 리얼 휴먼 연예인



## 좋은 PD가 되기 위한 조건

창조하는 끼와 감각 [감성 / 感性] 글로벌 AI 시대에  
자신만의 창조적, 예술적 능력

성실성과 노력 [정성 / 精誠]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공부와 노력

인간성 [인성 / 人性] 윤리적, 도덕적 자세 유지

실전 준비 TV 모니터링, 다양한 경험, 작문  
연습, 촬영 및 편집 실습



## <글로벌 AI 시대의 K-팝과 K-예능> 토론문

장희재 (방송대)

K-콘텐츠의 현장을 이끌고 계신 김준수 피디님의 발표를 듣게 되어 기쁩니다.

피디님의 프로필을 보니 저도 즐겨보았던 프로그램들이 김준수 피디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들 덕분에 즐거웠던 기억과 감동을 받은 기억도 같이 떠올라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피디님께서 한국 예능, 한국 음악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정리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1. 앞서 소개해주셨듯이 <붕어빵>, <스타킹>, <골목식당>, <푸드트럭>, <정글의 법칙> 등 국민 프로그램으로 불릴 만큼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제작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능의 콘셉트를 잡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능프로그램에도 작가들이 따로 있는데, 피디와 작가 간에 콘셉트를 구축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대표작이 많은 예능 피디들이 OTT 등으로 옮기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김준수 피디님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BS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TV 플랫폼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또는 매력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TV플랫폼이 갖고 있는 경쟁력 또는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한류가 시작된 초창기, 그러니까 1997년 <사랑이 뭐길래> 등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에는 TV 기반이 있기 때문에 방송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수출되었고, 인터넷 기반이 강해지면서 전송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적 교류 방식으로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출하는 방식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방송권, 전송권, 포맷 수출 등은 형태는 달라졌지만, TV 방송국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유튜브나 숏폼 같은 환경에서는 방송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지 궁금합니다.

4. 오늘 학회 주제가 'K-현상'이니 이에 관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K-콘텐츠를 생산하는 최전방에 계신데, K스러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2012년 중국에서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런닝맨> 등의 포맷을 수입하여 만든 중국 버전이 큰 인기를 끈 바 있고, 최근 <흑백요리사> 등도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K-예능이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발표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한국인이 없는 K-아이돌도 나오고, 한국어가 없는 K-POP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는 말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혹은 콘텐츠를 창작하실 때 세계 속의 콘텐츠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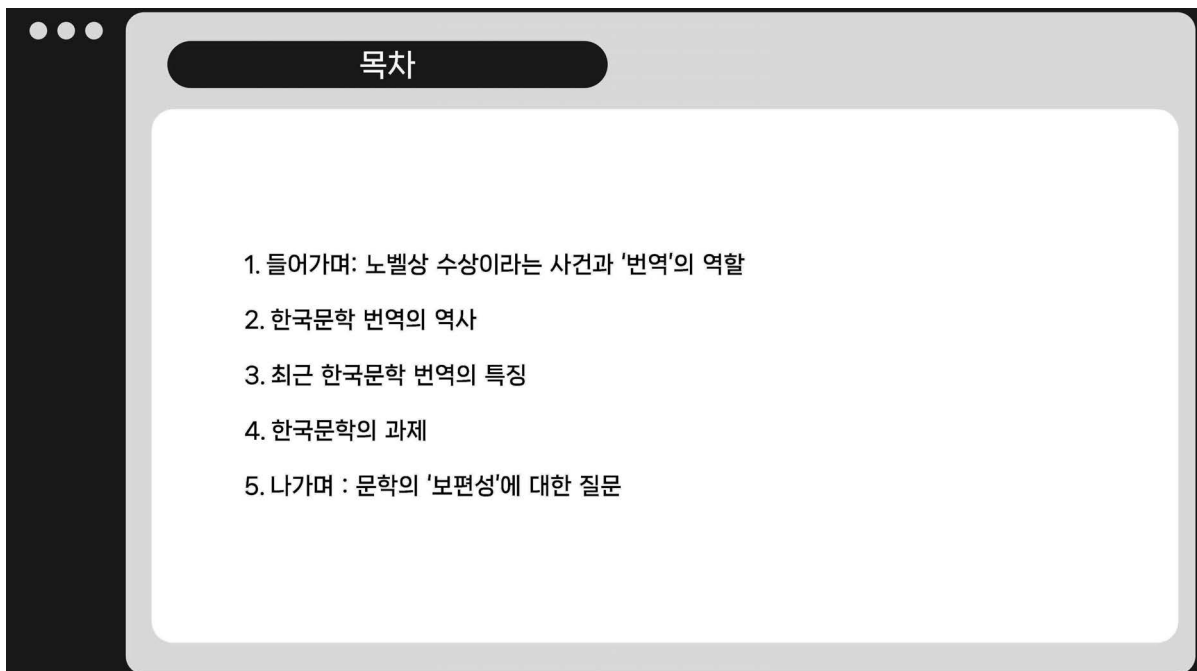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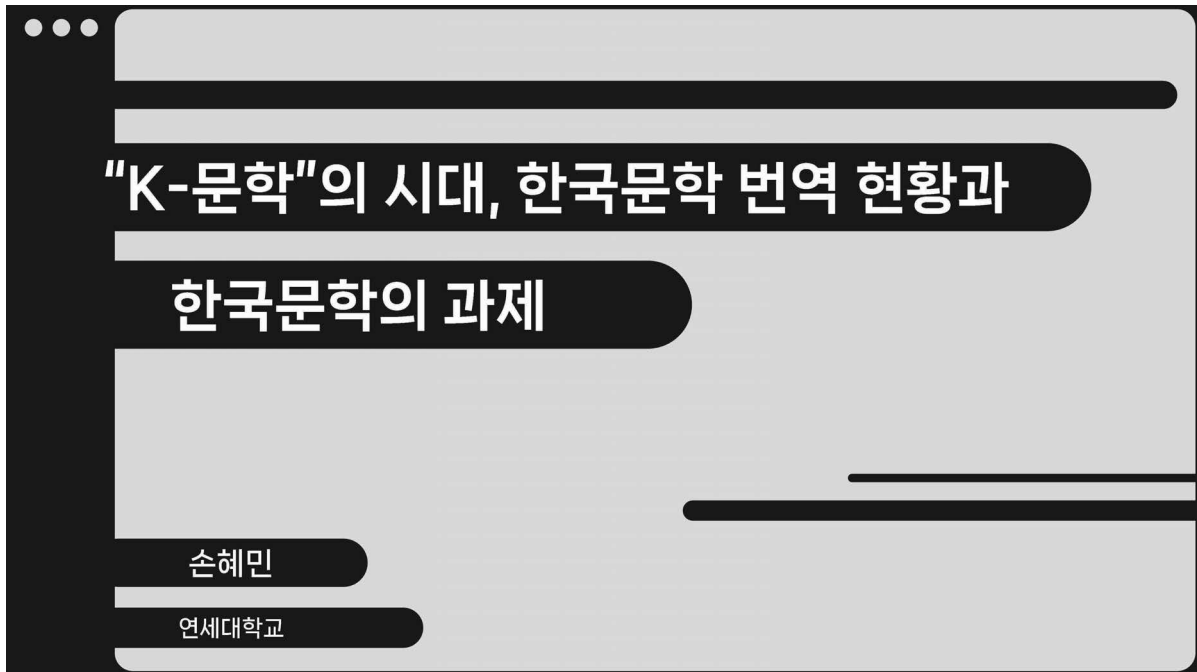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 궁금한 게 많아 질문을 여러 개 드렸습니다만, 편한 답변을 한, 두 개 골라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문학"의 시대,  
한국문학 번역 현황과  
국문학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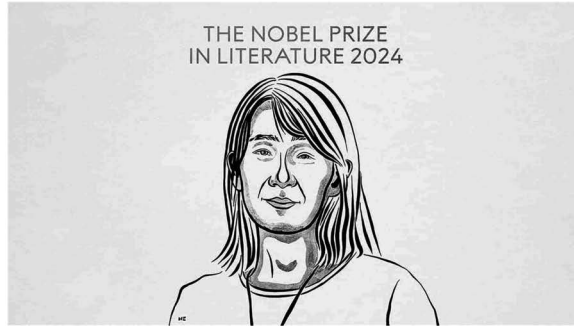
발표 - 손혜민 (연세대)

토론 - 심지영 (방송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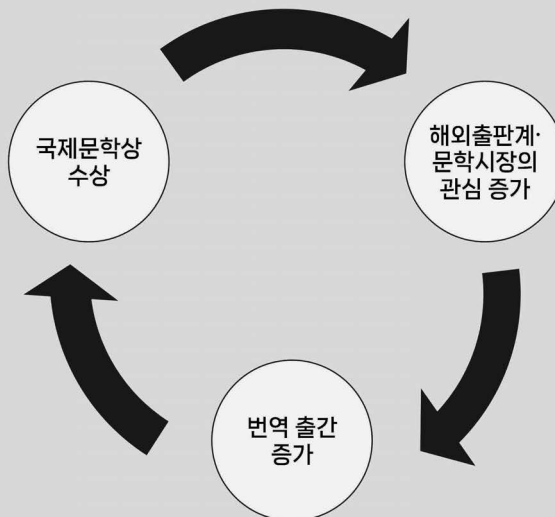


## 1. 들어가며



- 2016년 The Vegetarian( 채식주의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 2024년 노벨상 수상

## 1. 들어가며



## 2.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

### 1990년대 초반

- 프랑스 출판사 악트쉬드·필립 피키에 한국문학 본격 출간
- 이승우, 『생의 이면』 페미니상 외국소설 부문 유력수상후보로 거론

### 2005년

-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으로 초대
-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영미권(미국) 출간

## 2.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

### 2009년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미국·영국 출판사에 판매됨.

### 2011년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미국 출간, 한국문학으로는 유일하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기재

### 2012년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맨 아시아 문학상 한국작가 최초 수상



## 2.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

### 2015년

- 한강, 『채식주의자』 영국 출간.

### 2016년

- 한강, 『채식주의자』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 2024년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 2.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

### 번역 주체와 제도

---

- 1993년 재단법인 대산재단: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 시작
- 1996년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금고 설립

## 2.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

### 문학번역 담당 국가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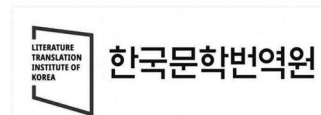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73-2000)
- 문화관광부(1979-1995)
- 한국문학번역금고(1996-2000)
- 한국문학번역원(2001-현재)

## 2.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

### 한국문학번역원

---

-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번역 지원.
-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 소설 등을 중심으로 번역 출판.
- 심사기준에서 작품성이 중요한 고려사항.
- 공공 대학 도서관, 문화원 중심, 한국문학/한국학 연구자 대상  
→ 출판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상 확대



### 3. 최근 한국문학 번역의 특징

#### 번역 대상: 한국 문단 내부와 외부의 시차 감소

- 2001~2015년, 공지영, 신경숙, 김영하 등 5회 이상 번역
- 2016년 이후 한유주, 김사과, 문보영 등 번역

### 3. 최근 한국문학 번역의 특징

#### 번역 대상: 비문단 권역 작가들의 작품 활발히 진출

- 웹소설, SF 소설 등의 출간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 지평이 확대됨
- K-문화와의 관련성



### 3. 최근 한국문학 번역의 특징

#### 주제: 페미니즘, 일상사

##### "김지영 현상"

- 10여 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
- 일본에서 2018년 출간 이후 20만부 이상 판매
- 중국 유명 도서사이트 <당당망>, 독자 리뷰 10만여 건



### 3. 최근 한국문학 번역의 특징

//

"극히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  
여성으로 태어나 가부장제 아래 살아온 모두의 이야기.  
이 책을 읽고 공감 못할 여자는 없을 것이다. 꼭 읽어보시길"

"나라가, 언어가, 문화가 달라도 많은 나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세계 여성들은 이 책을 읽고 공감대를 얻었을 것이다"

"동아시아 여성들의 처지가 너무 비슷하다.  
내 이야기가 아닌데도 내 옆에 있는  
여성들의 그림자가 곳곳에 비쳤다"

//

### 3. 최근 한국문학 번역의 특징

**사이토 마리코** (번역가)

//

한국 페미니즘 문학의 특징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문학 표현에 도입하는 교묘함  
엔터테인먼트나 서브컬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적인 문제와 대면하고 정치적인  
갈등을 통해서 사회로 열어 가는 것

//

### 3. 최근 한국문학 번역의 특징

**주체: 여성작가 · 번역가 중심**

---

- 영어권 해외 문학상과 주요 매체의 추천작에서 작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여성작가 / 번역가도 대부분 여성
- 2014년 이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여성 작가 작품의 출판 지원 대폭 증가.

### 3. 최근 한국문학 번역의 특징

**장 클로드 드 크레센조** (번역가·한국학교수)

//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책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오는 책들도 대다수가 여성작가의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출판되던 작가들은 오래전부터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오늘날 대부분의 저자들은 여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한국의 여성 문학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국 여성 문학에는 계보가 있습니다. 이 계보가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

### 4. 한국문학의 과제

#### 'K-문학'은 '한국문학'과 동의어인가?

- 시장성, 상품성과 문학성의 문제
- "탈한국적" 지향을 통한 '보편' 추구?
- 고유성을 상실한 채 'K-콘텐츠' 중 하나로 '축소'?

#### 4. 한국문학의 과제

##### 파트릭 모리스와 <한국문학총서>

- 악트 쉬드, <한국문학총서> 기획
- 파트릭 모리스,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선택하여 번역하고자.
- 한국문학의 특징은 유교적, 민족주의와 결합된 극사실주의적 성향

#### 4. 한국문학의 과제

##### 장 클로드 드 크레센조

-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일본의 점령, 한국전쟁, 세 명의 군사 독재자, 21세기로 구분.
- 고통의 문학 → 민주주의 문학 → 디스토피아적 문학

//

그(이승우)의 문학에 관심을 둔 이유는 L'Envers de la vie로 번역된 그의 첫 번째 책(『생의 이면』)이 저에게 충격을 줬기 때문이에요. .. 저는 그가 무척 보편적인 작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한 물음, 욕망에 대한 물음,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자리에 대한 물음, ..

//

## 4. 한국문학의 과제

### 한국문학은 무엇인가

- 세계화 시대의 한국문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해외문학상 수상이 새로운 한국문학의 이정표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
-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메이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화할 가능성

## 5. 나가며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이상 인간이 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



▣ “K-문학”의 시대, 한국문학 번역 현황과 한국문학의 과제 \_ 토론문

(별 지)



# 한국 대중문화 속 역사 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발표 - 이규철 (성신여대)

토론 - 서은혜 (서울대)



# 한국 대중문화 속 역사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이규철(성신여대 사학과)

## ◎ 이야기의 시작

- 한국사 분야는 인문학 중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음
- 중등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업 부담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면서도 고등교육 과정 이상에서 교양 분야로 관심이 높음
- 대중의 관심과 역사자료 DB 구축은 2000년대 이후 역사콘텐츠 제작 증가의 배경이 됨

## ◎ 이야기의 시작

- 한국사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역사 고증 문제가 항상 제기되었음
-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은 모두 가졌지만 본격적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히 대중 역사콘텐츠의 필요성과 제작 빈도가 증가하면서 제작 현장과 대중, 학계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였지만 진행되지 못했음

## ◎ 이야기의 시작

- 역사적 사실을 역사콘텐츠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
- 제작 현장에서는 역사적 내용의 반영 범위나 가능성을 직접 판단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의 반영 및 고증 기준에 대한 합의/공감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

## ◎ 이야기의 시작

---

- 문화콘텐츠학은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고민을 통해 시작된 학문 분야
- 학문 간 융복합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
- 문화콘텐츠학 ⇒ 연구와 활용의 영역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

## ◎ 이야기의 시작

---

- '역사콘텐츠' ⇒ 역사 속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대중들이 역사적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결과물 일체
- 역사학 ⇒ 과거의 사건과 인물의 실재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학문
- 영화·드라마·여행 등 현재의 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 속에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평가됨

## ◎ 이야기의 시작

---

- 한국사 분야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보유  
⇒ 자료를 문화콘텐츠의 생산 자원으로 활용하는 작업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
- 한국에서 역사와 관련된 소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활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함
- 한국에서 제작되는 역사콘텐츠는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드라마/영화 분야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됨

## ◎ 대중 역사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 ① 허준 : <집념(1975)> <동의보감(1991)>  
<허준(1999)> <구암 허준(2013)>
- ② 이순신 : <성웅 이순신(1962/1971) - 영화>  
<이순신(1977) - 드라마> <난중일기(1979) - 영화>  
<불멸의 이순신(2004)> <명량(2014)>  
(순수하게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만 소개)

## ◎ 드라마/영화 <집념>



## ◎ 영화 <성웅 이순신>



## ◎ 대중 역사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 한류 1.0의 중심 : 대장금(2003), 허준의 인기 요소와 궁중음식 소재 활용
- 현재 주목 받는 역사드라마 : 킹덤(2019, 2020)  
조선시대와 좀비 소재 활용 ⇒ 기발한 소재와 역사를 혼합하면서 새로운 장르 개척
- 대중들이 역사 소재 작품의 상상력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

## ◎ 대중 역사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 ◎ 대중 역사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 ◎ 대중 역사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 ◎ 대중 역사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 역사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콘텐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콘텐츠 제작 과정에 역사적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역사콘텐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상력의 범위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음
  - 영화 <명량(2014) - 배설>
  - 영화 <안시성(2017) - 스토리 개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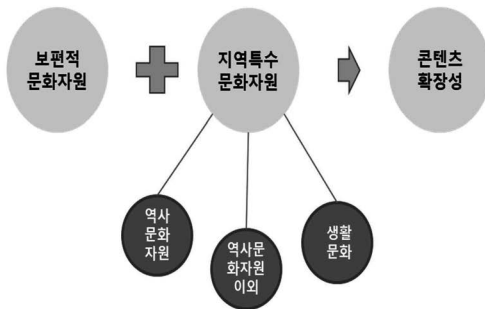
## ◎ 대중역사콘텐츠의 성과와 한계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역사 자료를 실제 활용하기 어려움
- 역사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자료 속에 전통문화 관련 풍부한 소재가 산재
- 역사콘텐츠 제작에 전통문화 소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역사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처음 산업·상업적 활용의 정도나 대중의 반응에 주목하는 동시에 경제 목적에 집중(영화 <쥬라기 공원>, 1993)
- 문화콘텐츠학 분야는 응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 초창기 킬러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상업성/대중의 반응은 중요한 분석 기준이 됨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현재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대중들의 지식 수준이 크게 높아진 추세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음
-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학력 수준 상승과 인터넷 등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의 용이한 환경 조성되었음  
⇒ 사회 전반에 걸쳐 높은 완성도의 콘텐츠 원하는 현상이 나타남 ⇒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역사콘텐츠는 소설 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성과물 생산  
⇒ 소설의 인기를 기반으로 드라마, 영화 제작
- 현재는 소설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중심으로 관련 역사콘텐츠 생산
- 다만 역사콘텐츠 제작의 소재를 웹소설/웹툰 등의 장르에서 주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같은 부분도 있음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역사를 소재로 했던 소설, 영화, 드라마의 고증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역사전문가들의 영역  
⇒ 지금은 해당 작품의 관람자·시청자들이 작품의 완성도나 역사 고증의 정확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영화 작품이 홍보 이외에도 실제 관객들의 평가가 흥행과 직결되는 상황도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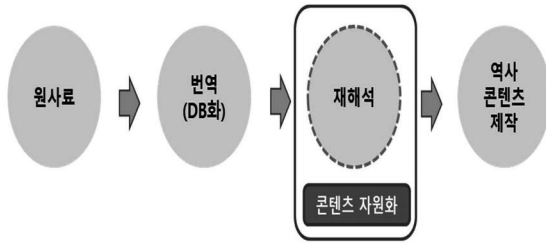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현대 사회의 대중들이 지적 욕구와 흥미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역사콘텐츠를 재현·제작하고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학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역사콘텐츠학의 핵심은 역사학과 문화콘텐츠학의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 수행
- 역사학과 문화콘텐츠학은 연구 방법이나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인문학, 역사학, 역사교육 등의 위기는 결국 전공 분야를 통해 사회로 진출할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현상임
- 한국 사회에서 역사 관련 분야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 역사 기반 관련 콘텐츠 제작



## ◎ 역사 관련 디지털콘텐츠 제작



## ◎ 역사콘텐츠의 특징과 역할

- 역사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역사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수준 높은 역사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음
- 역사적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및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 담당할 수 있음
- 역사교육과 역사콘텐츠 제작 현장의 중간 영역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

## ◎ 한국사 분야의 과제와 미래

- 모든 인문학 분야는 응용 분야 확장을 통해 저변 확대의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음
- 역사학 분야도 당연히 포함됨(한국사 교육에 대한 당위성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역사학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역사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야 함(학술~상업콘텐츠를 모두 포함)

## ◎ 한국사 분야의 과제와 미래

- 이미 가상역사물과 대체역사물이 많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음
  - 역사적 배경은 유지하지만 세부 내용 변경(인물/물건 등)
  - 역사적 결과 자체를 변경하는 스토리
- 역사를 무대로 대중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야 저변 확대가 가능함
  - 교육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

## ◎ 한국사 분야의 과제와 미래

-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대중들이 잘 아는 표현
  - 출처는 확인 작업이 필요함
- 하지만 모든 역사학 연구와 역사콘텐츠 제작은 '만약'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함
- 대중들의 상상과 가정을 막는다면 그 분야는 절대 확장할 수 없음

## ◎ 한국사 분야의 과제와 미래

- 기존 방식의 역사교육만으로는 역사학의 위기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역사교육이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교육 체제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보다 다양한 방식의 역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 한국사 분야의 과제와 미래

- 대중들이 보다 다양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역사 분야의 새로운 방향 찾을 수 있음
- 아주 쉬운 교육 프로그램부터 대중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역사콘텐츠, 전문학술 내용 다루는 프로그램 등이 모두 필요함
- 한국사 분야가 계속 존재하는 방법이라 판단

감사합니다

(별 지)



**K민주주의의 확산과**

**K민족주의의 대두**

발표 - 김재형 (방송대)

토론 - 김영진 (성균관대)



# K-민주주의의 확산과 K-민족주의의 대두

일자: 2024. 12. 20.  
발표자: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1. 'K-WAVE'라는 지구적 현상

## ● '이미지'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깊숙이 편입되고 있음
- 한국 문화의 확산과 함께 역사, 사회, 정치 등 '한국적인 것'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
- 특히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가
- 하지만 법과 제도보다는 아직은 '문화적 이미지'로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임
- 아시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이미지'는 어떻게 인식되고 소비되는가?
- 이러한 이미지를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하고 있는가?

# 2. 2019년 홍콩시위

## ● 희망으로서 한국의 민주화

- 2019-2020년 홍콩 시위  
(反對逃犯條例修訂草案運動)
- 홍콩 시위 조사 (10여 명의 홍콩인, 홍콩 거주자와 인터뷰)
- 김재형, 청년세대를 통해 본 2019년 홍콩시위, 메가아시아 시대, 청년을 말하다!, 2021.

<https://diverseasia.snu.ac.kr/?p=3657>



자료출처 : 2019.10.12. 저자 촬영  
침사추미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시위대의 모습  
(시위대가 손바닥을 펴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섯 손가락은 시위대의 5대 요구를 의미한다.)

## 2. 2019년 홍콩시위

1997년	7월 1일	주권 회복과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자치 약속
2003년	7월 1일	기본법 23조 입법 추진에 50만 홍콩인 반대 시위
2014년	6월 10일	中 "중양이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할권" 선포
	9월-12월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전개, 120만 홍콩인 시위
2019년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 반대 100만 홍콩인 시위
	6월 16일	'범죄인 인도법' 반대 200만 홍콩인 시위
	7월 9일	캐리 램, "송환법은 죽었다" 공개 선언
	9월 29일	캐리 램 하야와 송환법 원전 철폐 요구 시위
	11월 20일	美 상원 만장일치 홍콩 인권법 통과, 中 반발
	10월 23일	범죄인 인도법안 폐기
	11월 5일	사진핑, 캐리 램에 폭력 진압 지시
	11월 8일	시위 중 추락한 학생 끝내 사망, 첫 공식 사망자
	11월 24일	홍콩 구의회 선거 범민주 압승

2020년	1월 1일	신년 100만 시위, 후원계좌 동결한 HSBC에 반발
	2월 27일	홍콩시위대 노벨 평화상 후보
	3월 3일	캐리 램, "코로나 정치적으로 도움" 발언 파문

© Diverse+Asia



자료 출처 : 2019. 6.12. 뉴시스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는 홍콩 경찰

## 2. 2019년 홍콩시위

###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 당시 홍콩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음
- 1980년대 초부터 시민사회의 교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 2005년 12월 13일-18일, WTO 각료회의에서 천국농민총연맹 등 농민 9백여 명이 농산물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대규모 원정시위를 벌임
- 홍콩사회는 한국의 사회운동의 역량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음



자료 출처 : 2015. 12.22. 오마이뉴스  
홍콩거리를 삼보일배 하는 한국 농민

## 2. 2019년 홍콩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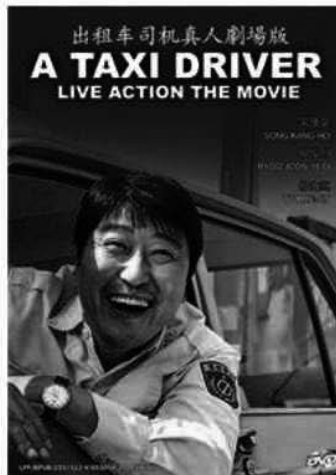
###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언급
-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면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홍콩 사회와 1980년 5월의 광주를 등치시키고 있었음
- 또한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승리'의 사례로서 의미화
-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러움과 더불어 경제적, 문화적 발전과 연결시켜 인식
- 하지만 광주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음 (운동의 여러 자원으로써 활용하는 측면)
- 그렇다면 홍콩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 2. 2019년 홍콩시위



May 18(화려한 휴가), 2007년작



A Taxi Driver(택시운전사), 2017년작



1987, 2017년작

## 2. 2019년 홍콩시위

### ● 2019년 한국에서 홍콩 시위

- 홍콩시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
- 민주화 vs. 식민주의
- 광주에서도 홍콩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함
- 아시아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 그것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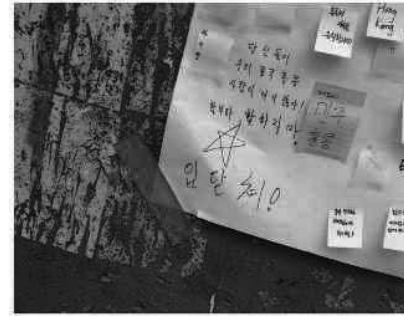
전국 언론

### 전남대, 홍콩시민활동가 간담회 대관 취소 논란 확산

광주시민단체, 10일 오후 전남대 강의실 대관 전남대, 행사 불허하여 중국 외교 의혹 확산

간담회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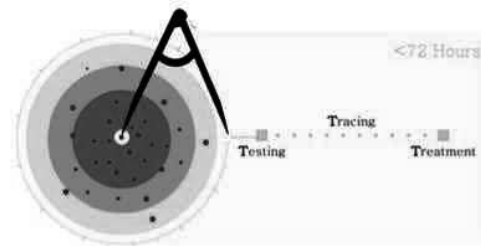
19년 02월 02일 09:44 2019년 02월 11일



## 3. 코로나19와 민주주의 논쟁

### ●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과 K-방역

- 2020년 2월 19일부터 대구로부터 코로나19의 확산
- 한국의 방역당국은 이른바 3T(Testing-Tracing-Treatment)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과 대비되며 이른바 K-방역은 다른 국가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받음 (BBC, 2020/3/12)



자료출처: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외과 박주진 교수

## 3. 코로나19와 민주주의 논쟁

### ● 코로나19와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

- 한편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적으로 통제하는 등 장기적인 봉쇄(lockdown)와 같은 방식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해낸 것으로 평가 됨
-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 됨
  - > 국가보안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안정을 도모함
-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식 방역 모델을 주변국에 전파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
  - > 방역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흔들리는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하겠다는 의도
- 생명정치 민족주의(biopolitical nationalism, kloet et al. 2020)
-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global bio-hegemony contest, 김재형, 2020)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K-방역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3. 코로나19와 민주주의 논쟁

### ● K-방역과 K-민족주의

- 2020년 9월까지 K-방역에 대한 한국 언론의 찬사와 사회적 지지
- '탈조선'에서 '포스트-코로나' 담론으로의 전환
-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 '촛불 정신'과 K-방역 담론
- K-민족주의의 등장



## 3. 코로나19와 민주주의 논쟁

### ● K-민족주의 안에 감춰진 민주주의의 위기

-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인종주의의 결합->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
- 마스크의 부족을 중국인에게 돌리는 담론
-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조선족과 외국에서 귀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짐
- 중국인과 조선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 중국인 거주지역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김
- 결국 과도한 추적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혐오의 대상이 됨



자료출처: 2020.2.17. 매일경제

## 3. 코로나19와 민주주의 논쟁

### ● K-민족주의 안에 감춰진 민주주의의 위기

- 코로나 시기 K-방역에 가린 여러 사회 문제들
- 공공병상의 부족
- 콜센터, 물류 창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
- 청도 대남병원 등 격리시설에서의 K-방역
-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 실업과 폐업
- 특정 세대와 젠더의 자살율 증가
- 계층 간 교육 격차의 확대
- > 2024년 현재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음

## 4. 광주민중항쟁과 K-민주주의

### ● 임을 위한 행진곡

- 1980년 5월 기리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전기', '5월의 노래'
  - 1987년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전국화 됨
  -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백기완의 '뭇비나리' (1980)
    - > 황석영 등 가사 작성 / 김종률 작사 (1982)
  - 1988년 대만 노동운동가가 한국 노동운동을 공부하러 한국에 왔다가, 마산 공장 파업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고 대만으로 돌아간 후 중국어 가사를 붙여 <노동자 전가(勞動者戰歌)>를 만들어 부름
  -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서는 '사랑의 출전(愛的征戰)'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는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주민운동의 맥락에서 불려짐
  -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에서도 노동운동 가요로 변안되어 불림
- 2019년 홍콩에 올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2020년 태국에서 올려 퍼진 '다시 만난 세계'

## 4. 광주민중항쟁과 K-민주주의

### ● 문화와 연결된 한국의 민주주의

2019년 홍콩에 올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2020년 태국에서 올려 퍼진 '다시 만난 세계'

- 아시아에서 한국 민주주의 인식의 기저에는 1980년 5월 광주가 있음
-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현대사 / 민주화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음
- 518기념재단에서도 아시아의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 미얀마 지원 등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과의 연대도 강화
- 아시아에서 K-현상은 단순히 문화적인 현상만은 아님
- 경제적, 문화적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체의 발전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음

**THANK YOU**

감사합니다

(별 지)